

99. 쇼트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우하지, 족부 연부조직손상

성별	여	나이	51세	직종	후처리 검사자	작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강OO(51세, 여)은 1992년 D회사에 입사하여 후처리공정 쇼트작업을 하였다. 2002년 9월부터 오른쪽 족부 동통 및 부종 증상이 있어 2002년 11월 20일 우측 하지, 족부 연부조직 손상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강OO은 입사 후 9년 9개월 간 조립작업, 연작작업, 절단작업을 하다가 2002년 6월부터 3개월간 후처리반에서 주물품 운반, 검사 및 탕구절단작업을 하였다. 주물품 운반시 사용하는 대차운반 작업자세는 쇼트기에서 대차를 빼낼 때, 두손으로 밀거나 잡아 끌면서 운반하는데 대차를 양손으로 잡는 거리는 64.5 cm이었다. 쇼트기에서 대차를 빼낸 후, 대차의 뒷부분에서 밀면서 쇼트기에서 적재장소까지 최대 24 m를 운반시 작업자세는 상체를 앞으로 15도 정도 기울이고 대차의 진행방향으로 보면서 미는 형태이다. 상기 근로자의 설명에서 의하면, 2002년 6월 4개월간 후처리반에서 대차 운반작업을 할 당시는 쇼트기 앞에서 대차를 운반할 때, 대차가 무거워(292 kg) 운반하기 힘들었고 쇼트기 앞 바닥이 거칠어서 대차의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더욱 힘이 들어, 오른발 및 장판지에 힘을 많이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사 당시 상기 근로자가 지정한 부분중 후처리반 근무당시 쇼트기 앞 바닥이 거칠어서 부서 이동 이후 새 철판을 바닥에 깔았음을 확인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강OO은 2002년 10월초(후처리반작업을 한 지 3개월 후)에 오른쪽 족부 증상이 발생하였다. 건염의 임상적인 경과로 볼 때 오른쪽 제 4, 5번째 족부 건 손상에 의한 급성기 증상으로 진단되었다. 상기 근로자는 오른쪽 발의 외상 기록이 없고 발에 안 맞는 구두를 신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반복적인 마찰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현재까지 과도한 반복적인 발의 동작으로 인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없으며, 생체역학적으로도 상기 근로자의 질병부위와 작업자세가 맞지 않으므로 후처리반에서의 작업자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았다.

4. 결론: 강OO의 우하지, 족부 연부조직손상은

- ① 오른발의 건염으로 진단되었고,
- ② 다른 질병력이나 외상력은 없으나,
- ③ 현재까지 과도한 반복적인 자세가 상기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없으며, 상기 근로자의 작업자세나 동작이 생체역학적으로 상기 질환을 발생시킬 만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작업자세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우하지 및 족부 연부조직 손상은 특진결과 건초염으로 확인되었고, 건초염의 발생부위와 작업자세가 맞지 않으므로, 작업자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